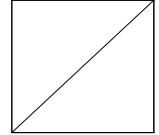


공개



의안번호	제 5 호	보 고 사 항
보 고 연 월 일	2026. 5. 29. (제 9 회)	

대학 연구시설 · 장비  
공동활용 촉진 방안(안)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

제 출 자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	교 육 부 장 관 최교진
제출 연월일	2026. 5. 29.	



# 대학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(안) (요약)

## I. 보고주문

- 「대학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(안)」을 별지와 같이 보고함

## II. 제안이유

- 대학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 확대 및 중·장기적 운영·고도화를 위한 관계부처 협력 기반의 지속 가능한 지원 구조로의 전환 필요

## III. 주요 내용

### □ 추진 배경

- 연구시설·장비는 국가 R&D 연구역량의 핵심 인프라이며, 특히 대학은 국가 연구시설·장비의 상당 비중\*을 보유 중

\* ZEUS에 등록(26.1.1. 기준)된 연구장비 93,480점 중 대학의 연구장비는 22,335점 (24%), 연구시설 622개 중 대학의 연구시설은 246개(40%)

- 기존 재정지원 및 인력·제도 여건만으로는 대학 연구시설·장비 활용에 한계, 부처 협업을 통한 사업 및 제도 개편 필요\*

\* (대통령지시사항)(25.11.)-「지역 대학 내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장비·시설 지원」  
“기설치된 공공영역의 장비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침·규정 마련”

### □ 문제점

- 대학 내 연구시설·장비가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\*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학 본부의 통합관리 권한 및 재원 부족으로 공동활용 한계

\* 정부 과제 수행 시, 교수실별 장비가 개별 도입됨에 따라, 동일 대학 내에서도 장비가 중복구매 되는 등 국가적 예산 낭비 초래

- 대학단위 공동활용 통합거점 시설의 부재 및 공동활용 유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양적·질적 한계로 장비 활용의 지역·대학 간 격차 확대
- 대학 내 장비 전문인력이 부족\*하고, 장비 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유휴·저활용 장비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
  - \* 시설당 전문운영인력은 5.3명, 1명당 장비수는 6.1점으로 과중('24년 연구시설 성과조사)
- 장비전문인력의 업무 가중에도 인력수급의 유인책 부재, 장비의 유휴·저활용 방치 및 외부 개방 기피에도 이를 전환할 수단 부족

#### □ 추진전략

- 교육부 소관 대학 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\*을 개편하여 공동기기원·공동실험실습관 중심의 공동활용 통합 지원체계로 전환하고,
  - \*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('19~) : 대학이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내 공동활용시설 중심의 재정지원 및 전담인력 집중육성('26년, 350억원)
- 아울러 연구시설·장비 전문인력의 관리 및 장비 소유권·이전기준 등 그간 장비 관련 현장의 불편이 잦았던 제도 사각지대를 정비

### IV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#### □ 기대효과

- 대학 단위 중심의 일원화된 장비 공동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, 지속가능한 대학 연구 인프라 개방·공유 생태계 조성

#### □ 향후계획

##### 부처 협력방안(안)

- (공동협의체 운영) 대학 지원사업 개편 논의, 신규 사업예산 확보 추진 등을 위해 교육부-과기정통부 간 공동협의체 운영 지속('26.1.~)

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	
회 차	2026 - 5 (5호)

---

# 대학 연구시설 · 장비 공동활용 촉진 방안(안)

---

2026. 5. 29.



관계부처 합동



# 목 차

I. 추진배경 및 문제점 .....	1
II. 비전 및 추진방향 .....	2
III. 추진전략 .....	3
전략1. 대학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운영체계 「고도화」 ..	3
전략2. 장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관리기반 「제도화」 ..	5
IV.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.....	7
[참고자료]	
대학 내 공동활용시설 우수사례[연세대, UNIST] .....	8



## I. 추진배경 및 문제점

### □ 추진 배경

- 연구시설·장비는 국가 R&D 연구역량의 핵심 인프라이며, 특히 대학은 국가 연구시설·장비의 상당 비중\*을 보유 중

\* ZEUS에 등록('26.1.1. 기준)된 연구장비 93,480점 중 대학의 연구장비는 22,335점 (24%), 연구시설 622개 중 대학의 연구시설은 246개(40%)

- 기존 재정지원 및 인력·제도 여건만으로는 대학 연구시설·장비 활용에 한계, 부처 협업을 통한 사업 및 제도 개편 필요\*

\* (대통령지시사항)(25.11.)-「지역 대학 내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연구장비·시설 지원」  
“기설치된 공공영역의 장비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지침·규정 마련”

### □ 문제점

- 대학 내 연구시설·장비가 개별 연구실 단위로 분산\*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, 대학 본부의 통합관리 권한 및 자원 부족으로 공동활용 한계

\* 정부 과제 수행 시, 교수 개인 연구실별로 장비가 개별 도입됨에 따라, 동일 대학 내에서도 장비가 중복구매 되는 등 국가적 예산 낭비 초래

- 대학단위 공동활용 통합거점 시설의 부재 및 공동활용 유인을 위한 지원사업의 양적·질적 한계로 장비 활용의 지역·대학 간 격차 확대

- 대학 내 장비 전문인력이 부족\*하고, 장비 이관에 대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에서 유휴·저활용 장비의 관리 사각지대 발생

\* 시설당 전문운영인력은 5.3명, 1명당 장비수는 6.1점으로 과중('24년 연구시설 성과조사)

- 장비전문인력의 업무 가중에도 인력수급의 유인책 부재, 장비의 유휴·저활용 방치 및 외부 개방 기피에도 이를 전환할 수단 부재

◆ 대학 내 공동활용 통합 관리체계 미흡 및 제도적 장치 공백  
⇒ 대학중심의 공동활용 생태계로 전환 필요

## Ⅱ. 비전 및 추진방향

<b>비전</b>	<b>대학 연구인프라 개방·공유 생태계 조성</b>
<b>추진 방향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대학 단위 통합관리체계 구축하여 공동활용 체계로 전환</li> <li>▶ 장비전문인력 및 장비 이관 기준 등 제도적 기반 마련</li> </ul>

<b>핵 심 전 략</b>	<b>대학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「운영체계 고도화」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공기원·공실관 중심 대학단위 통합 관리체계 구축</li> </ol>
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우수 핵심연구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센터 육성</li> </ol>
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지역 연구역량 동반성장 견인</li> </ol>
	<b>장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「관리기반 제도화」</b>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학 연구시설·장비 전문운영인력 지원체계 기반 구축</li> </ol>
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② 연구장비의 합리적 이관 기준 마련</li> </ol>
	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③ 대학의 유휴·저활용 장비 활용도 제고</li> </ol>

### Ⅲ. 추진전략

#### 전략1 대학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운영체계 「고도화」

◆ 대학 연구인프라 통합관리 및 우수센터 고도화를 통한 지역 동반성장 실현

As-is	To-be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학 내 과제별·분야별 인프라 구축</li> <li>■ 단발성 예산 배분 및 항목별 집행</li> <li>■ 과제 수행 여부에 따른 대학 간 격차</li> </ul>	⇒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공기원·공실관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</li> <li>■ 블록펀딩 기반 기관 단위 자율집행</li> <li>■ 지역 연구역량 동반성장 견인</li> </ul>

#### 1 대학내 공동활용 거점(공기원·공실관) 중심 「통합관리 체계」 구축

- 대학 내 공동기기원·공동실험실습관을 연구시설·장비 공동활용의 핵심으로 재편하고, 대학 단위 공동활용 통합 지원체제로 확장

< 핵심 추진전략(안) >

##### ① 대학 내 분산된 연구시설·장비의 통합관리 체계 마련

- 연구시설·장비 등록, 운영 기준 정립, 기관 차원의 통합구매·관리, ZEUS 연계 관리시스템 구축 및 DB 기반 연동·통합관리

##### ② 장비 전담운영인력, 연구지원인력 등 전문인력 구조 고도화

- 전담인력의 직무 정의, 배치 기준 마련, 전문교육 및 역량 강화 체계 구축 등

##### ③ 대학 내 공동활용시설의 위상 정립 및 기능 고도화

- 학제 간 융합연구 지원, 연구장비 공동활용 활성화, 공동활용 거점시설로 재편 등

- 대학 내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활용시설 중심의 '묶음예산(Block-funding)' 방식의 지원을 통해 성과 기반의 대학 재정운영 자율성 강화\*

< \* 참고 : 2027년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 >

- ▶ 공동인력·인프라 활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거점 중심의 생태계 육성 ⇒ 대학 내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을 공동활용 연구거점으로 재편하고 통합 관리체제로 전환
- ▶ 대학·연구기관 등이 연구거점으로 성장토록 블록펀딩 지원 검토 ⇒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인력(연구·장비운영·행정 등), 시설·장비 등을 갖추도록 예산 지원

- 대학의 역량과 규모를 고려한 자율적·장기적 지원을 통해 연구 시설·장비의 관리기반 제도화를 위한 대학 차원의 책무성 강화

## ② 우수핵심연구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으로 '지속가능성' 확보

- 기존 '핵심연구지원센터(Core-Facilities)\*' 중 우수 기관을 국가 공동 활용 생태계를 선도하는 핵심 허브로 육성 및 도약 지원

< \* 참고 : 핵심연구지원센터 개요 >

- ▶ (개요) 대학 내 연구 분야별 공동활용시설을 구축하고, 연구장비를 집적함으로써, 공동활용 활성화 및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('19년~)
- ▶ (규모) '26년 기준 전국 총 59개 운영 ('26년 신규 10개 포함)
  - ('19~'24년 전담운영인력 규모) 총 406명(정규22, 비정규384)
- ▶ (주요성과) ①연구장비 집적·신규 구축 확대, ②공동 활용 건수·시간 증가 및 수익 창출
  - (집적 및 신규) <sup>(22)</sup>1,855점/38점 → <sup>(23)</sup>2,230점/51점 → <sup>(24)</sup>2,434점/65점
  - (공동활용 규모/ 수익) <sup>(22)</sup>142,047건/128억 → <sup>(23)</sup>143,897건/133억 → <sup>(24)</sup>169,172건/128억

-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최소 운영규모 확보( '30년까지 100개 목표) 및 기존 센터의 특화 분야별\* 재조성을 지원

\* 5극3특 전략산업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략산업 중심으로 핵심연구지원센터 특화 (예시 : 동남첨단 항공부품, 대경신소재부품, 중부첨단반도체, 호남모빌리티 전장부품 등)

- 특히, 센터의 전반적 역량 제고를 위해 엄격한 성과평가에 기반한 예산 차등 지원 및 신규 과제와 후속 과제와의 연계\* 강화

\* 단계 및 최종평가 결과를 후속 지원의 핵심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, ①우수센터에 대한 계속(또는 후속) 지원, ②부실 운영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

## ③ 지역 연구역량 동반성장 견인 ([1]+[2])

- 중·장기적으로 거점 대학의 연구인프라를 인근 대학에 개방하여 지역 내 연구장비 양극화 해소 및 대학 간 융합연구 촉진

- 특히, 「5극 3특 지역균형발전 정책」과의 연계로 권역별 지역 특화 분야에 대한 인프라 조성에 집중 지원 기반 마련

- 센터 간 거점 네트워크 구축\*의 성과를 바탕으로 대학 내 R&D 시설·장비 기반의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운영 지원

\* (예시) 코어센터 생명의료분과 협의회(전국 23개 생명의료분과 코어센터 참여)

- 사업 추진 과정에서 '지역 균형 발전전략과의 연계\*'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 및 향후 선정 과제의 최소 40% 내외를 지역 소재 센터로 선발

\* (예시) 대학이 지역 혁신 핵심 주체로 역할 수행 및 대학의 지역 연구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기여도 등을 핵심 요소로 반영 (지역 내·외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정도 등)

## 전략2

# 장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관리기반 「제도화」

### ◆ 대학 현장수요 반영한 인프라 운용제도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

As-is	To-be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장비 전문인력 부족 및 전문역량 한계</li><li>연구장비 이관에 따른 분쟁 발생</li><li>대학 연구실 내 방치된 장비 다수</li>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대학 장비전문인력 관리 제도 신설</li><li>연구장비의 기관 간 합리적 이관 기준 마련</li><li>대학의 유휴·저활용 장비 활용도 제고</li></ul>

## 1 대학 장비전문인력 「관리 제도」 신설

○ 대학 내 연구장비 장비전문인력\*의 정규직 고용 지원 및 장비전문인력의 직군 및 등급을 표준화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

\* 전문적 경험·지식을 바탕으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인력

- 장비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현재 별도 분류체계가 없는 장비전문인력의 직군\* 및 경력에 따른 등급\*\*을 신설하여 전문성 강화

\* '장비전문인력'을 법적으로 정의하고, 직무를 △전문적 운용, △전주기 유지관리, △연구협업지원, △연구운영지원 등으로 표준화

\*\* (학력·실무경력) 2급 → 1급 → (교육·자격·운영성과에 따라 승급) 고급 → 특급

- 대학 연구시설·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장비전문인력의 정규직 비중 확대 및 고용 규모 등을 후속지원 단계평가 시 가점으로 활용

## 2 연구장비의 기관 간 「합리적 이관 기준」 마련

○ 현 제도\*상 장비는 기관 귀속이 원칙이나, 연구자의 연구 연속성을 위한 합리적인 대학 간·기관 간 연구장비 이관 기준을 마련

\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(연구개발 성과의 소유·관리) 제1항에 따라, 연구개발성과는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고, 장비 역시 연구개발성과에 해당

- 연구책임자 이직 시 기관내 장비의 활용 수요 유무 및 과제 진행 여부(종료/진행중)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관할 수 있도록 법제화\*

\* A대학의 교수가 B대학으로 이직 시, 기관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, 분쟁 지속시 국가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 중재·해결

- 국립대 산학협력단의 장비 임의 처분을 방지하여 장비 이용료가 시설·장비의 유지보수 및 인력 운영에 재투자될 수 있는 구조 마련

※ (例) 국립대 산단이 구축한 장비를 관리 편의 등의 사유로 대학본부로 기부채납 하여, 국유재산으로 귀속된 장비 수익금이 유지보수 재원으로 쓰이지 못하는 사례 발생

### ③ 대학의 유휴·저활용 장비 「활용도 제고」

- 대학 내 개별 연구실에 방치된 장비의 현장 전수조사\*를 추진하여 유휴·저활용 장비의 관리 강화 및 공동활용 활성화를 촉진

\* (현행) ZEUS 등록 시설·장비 대상으로 매년 서면 실태조사→(문제) ZEUS상 정보와 실제 장비정보의 불일치로 연구자 불편 야기→(개선) 2년마다 현장 전수조사 추진

- 이를 통해 ZEUS(제우스)\*에 등록된 대학 내 모든 장비의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환류하고, 장비 정보 현행화 의무 부여를 통해 관리 강화

\* 국가장비활용종합시스템<sup>ZEUS</sup> : 국가 예산으로 구축한 연구시설·장비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연구자의 편리한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범부처 통합 서비스

#### 참고 지역 대학 내 유휴·저활용 장비 방치사례



· 지역 소재 A대는 수탁사업으로 약 18억원 상당의 반도체 분석장비를 구축하였으나, 사업 기간 종료 후 연간 1억원 수준의 유지보수비 확보가 어려워 '20년 이후로 현재 유휴·저활용 장비로 방치 중

- 교육부-과기정통부 상설 협의체 운영 및 NFEC(엔펙)\*의 지원 역할을 통해, 대학 내 연구시설·장비가 체계적으로 파악·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

\*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(NFEC) : 연구시설·장비의 확충·고도화 등의 추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범부처 연구시설·장비 전담 기관('08~)

#### < 협력 주체 간 역할 분담 >

교육부	NFEC	과기정통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사업 기획·운영 총괄</li> <li>• 대학 내 연구 거버넌스 구축 지원</li> <li>• 지역 균형 정책 총괄</li> <li>• 교육부-과기정통부 협의체 공동 주관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및 제도 운영 지원 실무</li> <li>• 표준·제도·평가 지원</li> <li>• 대학 연구장비 통합관리 플랫폼 운영</li> <li>• 연구장비 실태조사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대학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체계 구축</li> <li>• 관련 법령 제정·정비</li> <li>• DB 구축 표준 마련·ZEUS 고도화</li> <li>• 과기정통부-교육부 협의체 공동 주관</li> </ul>

## IV.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

### □ 기대효과

- 대학 단위 중심의 일원화된 장비 공동활용 체계 정비를 통해, 지속가능한 대학 연구 인프라 개방·공유 생태계 조성

### □ 향후계획

#### 부처 협력방안(안)

- (공동협의체 운영) 대학 지원사업 개편 논의, 신규 사업예산 확보 추진 등을 위해 교육부-과기정통부 간 공동협의체 운영 지속('26.1.~)

세부 추진내용	일정	소관 부처
① 대학 지원사업 개편을 통한 운영체계 고도화		
① 대학내 공동활용 거점 중심 통합관리체계 구축		
- '27년 신규 재정지원사업 기획 및 추진	'26~	교육부
② 우수핵심연구지원센터의 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센터 육성		
- 핵심연구지원센터 후속과제 개편 기획 및 추진	'26~	교육부
③ 지역 연구역량 동반성장 견인		
- 5극3특과 연계한 지역 연구역량 강화 기획 및 추진	'26~	교육부
② 장비 지원체계 개편을 통한 관리기반 제도화		
① 대학연구시설·장비 전문운영인력 지원체계 기반 구축		
- 장비전담인력 직군신설 및 등급 표준화 현장의견수렴	~'26.8.	과기정통부
② 대학 현장여건을 반영한 연구장비의 합리적 이관 기준 마련		
- 법 제정 상정 추진 및 관련 표준지침(고시) 개정	~'26.12.	과기정통부
③ 대학의 유휴·저활용 장비 활용도 제고		
- ZEUS 등록 대학 전체 장비 전수조사 실시	'27~	과기정통부

[ 사례 1 ]	연세대학교 공동기기원
<p><b>설립목적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첨단 공동연구장비 확보 및 연구 인프라 구축, 고가장비 중복투자방지, 공동활용을 위해 설립</li> <li>- 캠퍼스 간 유기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연구장비를 운영하고자 설립</li> <li>- 기기 사용자 확대 및 분석 전문인력 양성, 전문인력을 통한 효율적 장비 활용, 유지관리</li> <li>- 교내외 연구자 및 산업체 대상 유기·바이오 분석, 무기분석, 표면분석 분야 등에 대해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</li> </ul>
<p><b>지원대상·내용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 내·외부 연구자 및 산업체 대상지원</li> <li>- 장비 공동활용 뿐만 아니라 전담운영인력을 통한 분석서비스도 수행</li> </ul>
<p><b>지원체계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'10년 대학 부설 연구처 산하기관으로 설립</li> <li>- '25년 현재 공동기기원으로서, 장비 85종(330억원)과 28명(정규직 19명, 계약직 9명)으로 구성</li> </ul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pre> graph TD     A[총장] --&gt; B[연구부총장]     B --&gt; C[연구처장]     C --&gt; D[공동기기원장]     D --&gt; E[운영위원회]     D --&gt; F[그룹장]     F --&gt; G[팀장]     F --&gt; H[행정 파트]     G --&gt; I[기기운영 1파트 무기 파트 Inorganic Analysis Lab]     G --&gt; J[기기운영 2파트 유기·바이오 파트 Organic·Bio Analysis Lab]     G --&gt; K[기기운영 3파트 이미징 파트 Imaging Analysis Lab]     G --&gt; L[기기운영 4파트 구조 파트 Structural Analysis Lab]             </pre> <p>[ 연세대학교 공동기기원 조직체계 ]</p> </div>
<p><b>성과·시사점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성과) 수요자 베이스의 공동기기원 연구장비 구축, '25년 교육부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(인프라 고도화 과제) 선정 이후 바이오 관련 연구장비 확보로 연구지원 스펙트럼 확장</li> <li>- (시사점) 고가연구장비 확보를 통해 연구인프라를 구축하며, 기기 공동활용 증대 노력으로 자원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전담운영인력을 양성함</li> </ul>

**[ 사례 2 ]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장비교육·지원처 (UNIST ResFact)**

**설립목적**

- 첨단연구장비 집적화, 공동활용 활성화, 전문분석, 가공·공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장비 활용·교육·운영 핵심 시설(World Leading Core Facilities) 구축
- 고품질의 시험분석 공정 기법 개발 및 연구지원 서비스 제공
- 첨단장비 활용 교육 및 자문, 산업체 원천기술 상용화를 위한 시험분석 솔루션 제공

**지원대상·내용**

- UNIST 내부 180개 연구실, 교수, 연구원, 대학원생, 학부생 지원
- 24시간 개방형 연구장비 인프라 운영, '24년 자율사용자 1,028명
- 외부 산학연 기관 대상 전국 221개 기관 지원('24년 기준)
- '찾아가는 연구장비 컨설팅' 사업 수행 ('25년 20개 산업체 지원, 150개 이상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연구장비전문인력 양성)

- '08년 12월 UNIST 설립 '중앙기기센터' 개원(인력 4명, 장비 125대)
- '11년 연구지원본부로 부서명 변경(인력22명, 장비172대), 현재 1센터 4팀(인력59명, 장비511대) 운영 중
- 24시간 사용자 직접사용이 가능한 국내 유일 개방형 Core Facility  
→ 첨단장비 516대(880억원), 연구장비전문가 49명(석·박사급 73%)으로 운영
- 양자·반도체, 이차전지, 수소, 첨단 모빌리티, AI(자율구동 실험), 첨단 로봇·제조, 차세대 원자력, 항공·해양 등의 분야 지원



[ UNIST 연구지원본부 조직체계 및 지원분야 ]

**성과·시사점**

- (성과) 부울경 거점 연구지원 시설로서 **최첨단 연구장비 집적화 및 연구 몰입환경 조성** 산업체, 대학, 지역 출연연구기관의 **싱크탱크 및 연구지원 수행**
- (시사점) **개방형 연구지원 체계 및 자율형 사용자 교육 시스템 구축, 전문인력 확보 및 역량강화** 지속을 통해 지역혁신에 기여

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 대학정책관 학술연구정책과	
담당자	김진홍 서기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3-6867 E-mail : kjhgos@korea.kr

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	
담당자	이정희 사무관
연락처	전 화 : 044-202-6936 E-mail : lavitaebella@korea.kr